

도서관계 주요행사 소개 ① ; 공공도서관협의회 총회

공공도서관협의회는 3월 23일 2001년 총회 및 특별연구과제 발표회와 함께 “온라인 저작물, 도서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에서 회원도서관 288개관의 관장 및 직원 42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총회에서는 2000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0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처리되었다. 2001년도에는 공공도서관 요람 발간, 특별연구위원회 활동 강화 및 연구결과물 발간, IFLA총회 참가 지원, 도서관협력사업 회의 지원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년에 비해 555만원이 증가한 총 6,753만1천원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이어 2000년도 특별연구과제 결과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김현남 사서과장이 “자료의 보존문제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16개 지부장도서관과 16개 운영위원도서관 등 32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자료보존과 관련한 사서들의 의식과 태도, 실제의 보존활동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료보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서들은 대체로 자료보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실무에서는 실천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 제도와 업무환경이 이상적인 면과는 거리가 먼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보존을 위한 물리적인 요소들도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들의 의식 부족보다는 공공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서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덜 훼손될 수 있는 자료들도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

도 강조되었다. 자료보존에 대한 환경적 요소로 시설적인 면, 기자재나 공동보존의 활용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예산 등의 이유로 필요성은 인정 되면서도 실제 실천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별도의 보존예산 책정이나 공동보존 등에 대해서는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도서관간, 또는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존은 거의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자료보존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보존공간 부족이며, 다음으로 이용자의 이용태도 불량, 자료폐기의 기피, 보존예산 미확보 등으로 드러났다. 비록 아직 보존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의 자료보존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제반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두 번째로는 박이현 경기도립영주공공도서관 사서가 “공공도서관 인터넷참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모형 개발”이란 주제로 공공도서관 참고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터넷 참고서비스 모형을 개발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119관 가운데서 10% 정도인 12개 관만이 홈페이지 상에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참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우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주요 메뉴로 참고서비스 메뉴를 포함시키고, 이용자 측면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참고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은 별도의 메뉴로 구성되어야 하며, 게시판 기능을 통해 혼용하는 방식은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터넷참고

서비스의 홈페이지는 참고질의신청서와 인터넷 참고정보원, FAQ는 기본적 구성요소로 구축하고, 부차적 요소로는 검색엔진, 관련사이트소개, 자료검색도우미, 자료실, 유용한 URL첨가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발표자는 인터넷참고서비스 모형 구축의 의미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자원부족을 해소하고 아직도 필요한 정보는 도서관에서 더 많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이트 개설을 통해 도서관들이 이 시대의 필수정보원인 인터넷을 이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는 최근 들어 전자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일부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하여 이를 서비스하기도 하여 이제 전자책이 도서관 장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저작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국립중앙도서관로서는 비록 온라인저작물이 통제하기도 쉽지 않으며 수집과 처리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유산으로서의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시대적 책무와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 eBook의 현황과 전망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2. 온라인저작물의 수집 및 보존 (윤희운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3. 온라인저작물의 서지통정 및 서비스 (곽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김경일 전자출판과 교

수, 오용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장, 오삼균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백원근 연구원은 국내외 전자책의 발전현황을 소개하고 시장의 잠재력은 크지만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중심의 시장구조에 기반한 수익모델 창출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전자책이 향후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세계적으로도 점진적이고 확실한 성장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책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전자출판물 등 첨단매체에 대한 법적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자출판물을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출판물로 취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없는 도서에 대한 '대여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전자책 관리체계로서 인증제도, DOI, 납본제도 및 심의제도, 세계 지원문제, 민간 전문기구의 필요성과 육성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실제 전자책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책 포맷의 표준화, 전자책 관련 체에 대한 자금지원, 현재의 서비스업체 주도형 모델에서 출판사 주도형의 생산·유통체제 모델로의 전환, 전문인력 양성과 전자책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윤희운 교수는 전자출판물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의 조사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제반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되어야 하며, 국가도서관이 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법적 납본제를

도입하되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가도서관에서의 전자출판물 수집과 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은 수집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수집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새로운 직종과 조직시스템이 필요하며,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칭 '국립중앙도서관법'을 제정하여 납본조항을 강화하되 저작권 문제를 심도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국회도서관의 'copyright office'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가칭 '국가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자출판물의 보존을 위한 다양한 보존방안과 실무적 과제, 즉 국가차원의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포맷의 중립성 원칙의 확인 등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실무진의 웹 정보의 검색능력,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링크하는 등의 기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곽동철 교수는 우선 전자출판물을 팩키지형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또는 네트워크형 전자출판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온라인전자출판물(온라인저작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온라인저작물의 유형과 특징을 규명한 후 이러한 저작물의 서지통정과 관련하여 정보자원의 기술과 메타데이터, 기술형식과 그 유형, 식별 및 접근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온라인저작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메타데이터의 관리와 정보서비스의 모델 유형 몇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제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역할과 함께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온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추진과 관련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선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인 국민을 위해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전 역할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도서관망의 중추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꼭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이 여러 외국의 콘텐츠나 타 기관 제작 DB의 수용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진국과 같이 도서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술개발, 양질의 콘텐츠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 사회적 과제들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관련 사업의 중복성 배제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세미나 자료집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 도서관안내/도서관소식의 46번에서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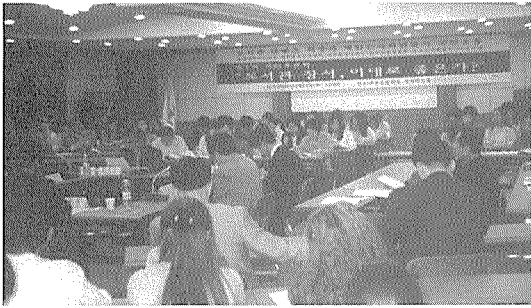
도서관계 주요행사 소개 ② ;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제1회 국민토론회 “도서관 장서, 이대로 좋은가?”

최근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서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우리 협회와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은 지난 2월 26일 첫 번째 지식인 선언을 발표 한 이후 4월 12일 도서관 문제의 대중화를 위한 첫 번째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도서관 장서, 이대로 좋은가?’로 이는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현재 또는 앞으로의 도서관 장서의 질적 수준 향상 또한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도서관계는 물론 문화계, 출판계 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마침 4월 12일은 우리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도서관주간 첫 날이기도 하여 토론회의 의미가 남달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우창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는 책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직업인 인문과학 분야 교수이면서도 정작 도서관이 제공하는 편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습관화 되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차원에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도서와 정보를 보다 널리 공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별히 인문과학의 전문적 연구는 사회의 전체적 유기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전문적인 인문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서와 정보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학의 도서관이 이러한 필요에 잘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리면서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재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바르게 사회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나아가 도서관을 충실히 하는 것은 간단히는 장서를 늘린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지만 책을 늘리는 것은 좋은 책을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도서 선정기능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사서의 양성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도서 선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전문적 식별능력의 공급을 제도화하는 일, 좋은 책의 출판이 전제조건이라는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도서관 문화가 성립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김 교수는 책을 접하는 데에는 필요와 편의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필요가 약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는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편의의 면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도서관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가 긴급한 동기가 없더라도 독서의 즐거움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회 문화의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정보와 지식으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경제와 정치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여유있는 독서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는 어렵고, 도서관이 문화의 중심



〈토론회 장면〉

적 기구가 되기는 쉽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영기 강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내용은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왜곡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이주민들의 교육을 위한 기본 교양장서와 식민지 통치이념에 기초한 사상선도, 해방이후에는 특정 이념을 통해 교육이나 출판 등의 문화적 환경을 지배하려는 경향,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황이라든가 그것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출판환경, 도서유통구조 등이 도서관 장서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1980년대 이후에는 공공도서관의 장서축적 과정에 편견이나 왜곡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왔으나 전문직 관장이나 직원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서관의 조건이 변화하고, 나름대로 문제의식도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서관의 자율성이 크게 확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1년 예산보다 못한 예산이 전국 400여개의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예산증액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양서를 구입해 주어야 출판계도 자존심을 가지고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가장 핵심사항은 우리 국민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데 있고, 그것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감소나 사회전반에 책읽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고, 사회운동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우 책을 개인이 구입하여 읽는 경우는 드물고 모두 동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 특히, 아동도서의 경우는 더하다. 개인이 모든 책을 사서 보는 풍조 이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런 문제점이 도서정가제 문제로 표출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한 토론자는 지난 20세기는 미국과 일본에 의해 우리의 지식체계가 심하게 왜곡된 100년이었고 그 동안 지식인들은 미·일에서 생산한 지식을 수입하는데 급급해 왔는데 이제는 장서가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장서구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 공공도서관 장서는 미국 중심의 장서구성으로 균형이 깨진 상태인 만큼 미국 중심의 지식축적체계를 개선할 도서관 장서재편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날의 토론회는 중앙대학교의 강내희 교수가 사회를, 토론에는 경희대학교 도정일 교수,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성종대 운영위원, 도서출판 한울의 김종수 대표, 난곡주민도서관 이명애 실장, 도서관운동가 전세중 전마산책사랑대표가 나섰다.

한편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책 읽는 사회 만들기”보다는 “책 읽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가 더 정확한 명칭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함께 “콘텐츠”라는 어휘가 다소 생소하고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또한 대학교 1학년생인 참석자는 얼마 전 자신의 고교시절을

회상하면서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강제성을 띄고 독서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래야만 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며 우리나라 입시상황에서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독서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의 토론회는 그 동안 거의 관심의 외곽에

서 잊혀졌던 도서관의 장서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서관계도 스스로 장서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장서의 확충이 단순한 양의 증가가 아닌 진정한 '도서관 장서'로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 토론회였다.

도서관계 주요행사 소개 ③ ; 학교도서관 살리기국민연대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

오늘날 공교육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참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살아야 교육이 변하고 교육이 변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기치 아래, 진정한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도서관인연합(공동대표 김용철, 한상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박윤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등 13개 단체와 김영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지난 해 11월 말 창립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상임대표 한상완)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 고취와 학교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을 위해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4월 26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도서관계는 물론 시민단체나 학생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KBS 등 언론사에서도 많이 취재를 한 이날의 공청회는 현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반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의 공청회는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은 왜 필요한가?" (이용남 한성대학교 교수),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현황과 개선방향" (변우열 공주대학교 교수) 등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지정 토론에는 학부모를 대표하여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의 윤지희 회장, 초등학교장을 대표한 안산성포초등학교 최장명 교장, 기존 도서관운동을 대표하여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곽도 추진위원이 참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자인 인적자원정책국 조정2과의 오승현 과장도 토론에 참여하였다.

주제발표를 한 이용남 한성대학교 교수와 변우열 공주대학교 교수는 모두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의무적 설치, 장서와 시설의 확충, 운영경비의 안정적 조달, 그리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서교사의 전면적인 배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변우열 교수는 구체적으로 제 법령의 조항들을 들어가면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후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대체로 주제발표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교육인

적자원부의 조정2과장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당위성과 현실적인 정책입안과 집행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지방화, 자율화 시대에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예산당국과의 이해조정도 필요하다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개별 학교 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독서교육이나 협동교수학습 프로그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되면 좋겠으며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참여확대, 그리고 전담 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객석에서의 질의와 의견개진 시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 시 학교도서관 관련 시책여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교원연수 시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김용철 공주대학교 교수),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초급교사가 아니라 상급교사로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도서관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전환해야 하며, 관련 기준에 반드시 시설과 설비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파주시청 박노성 계장)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윤지희 토론자는 추가발언을 통해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살리기에는 사서교사나 문헌정보학과 학생 등 도서관계도 보다 적극적 참여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본격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다룸으로써 그 동안의 학교도서관 관련 운동의 성과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아직도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이의 제도화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의지와 구체적 실천이 추진되어야 하는 등의 적지 않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고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라는 범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그 동안과는 달리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비로소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공청회 자료집은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홈페이지(<http://www.urido.net>)에서 구할 수 있다.]

도서관계 주요행사 소개 ④ ;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회

한국문헌정보학회(회장 이은철)는 4월 27일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첨단강의실에서 학술발

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는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정현태 명지대 강사)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책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인터넷음란물과 관련한 각국의 사법적 및 기술적 대응책과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음란물 이용정책,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음란물 규제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 대응지침을 모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도서관의 정보화가 진척되어감에 따라 음란물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구체적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를 부분적으로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의 음란물 차단문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음란물이란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며, 도서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사상에 대한 검열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정현태 강사는 인터넷음란물에 대해 공공도서관은 검열에 대한 조건 없는 반대를 명분으로 일체의 음란물에 대해 무정부적 방임을 조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나름의 원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도서관 자체의 기반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제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내규를 정비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디지털참고봉사 模型 構築에 관한 研究 (김휘출

성균관대 강사)

이 연구는 시스템이론과 커뮤니케이션이론 및 참고봉사과정 이론과 실무영역을 토대로 하는 디지털참고봉사의 개념적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서비스시스템에서 구성인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상세히 기술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도서관에 적합한 디지털참고봉사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디지털참고봉사를 '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의 쌍방향 기능을 이용하여 사서가 문헌정보와 인터넷콘텐츠 및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참고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본조사기관들로부터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참고봉사 모형 구축에 필요한 공통의 유형인자를 도출하였는데, 감지인자로서는 이용자 수준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제 운영이 바람직하다. 처리인자로서는 응답자는 가능하면 세부 주제별로 나누고, 간단한 질문은 디지털참고봉사 담당사서로 하여금 즉답 처리하게 하며, 전문적인 내용은 각 주제전문사서들에게 배분하여 응답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인자로서의 답변은 전자게시판과 전자우편을 동시에 이용하되 이용자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며, 답변내용에는 참고한 정보원의 출처와 검색과정 및 답변사서의 정보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립대학교 도서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전북대 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진원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학의 교육개혁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개혁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핵심장치인 대학의 도서관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대학교 도서관의 사례연구를 통해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북대학교의 발전계획과 특징을 제시한 후 이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직접봉사 프로그램으로 강의, 대학원 학위논문 준비, 교수의 연구활동, 취업, 고시, 유학, 대학원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교양이나 취미, 흥미와 관련된 정보봉사도 꾸준히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교육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도서관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타대학이나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개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간접봉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우선 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사회적, 기술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서들의 연수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도서관 조직구조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제별 정보봉사 활동에서 사서들의 능력을 강화,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직접봉사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봉사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장서량의 확충과 도서관 네트워크의 충실한 구축과 활용, 도서관 이용시설과 사서직원의 확충과 같은 기반조건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저널 가격정책의 최근 동향에 관한 고찰 (신은자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들어 오랜 전통을 지닌 학술지들이 점차 전자저널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고 향후 그 수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는 출판사의 가격정책은 천차만별이어서 일관된 수서정책을 시행하는 도서관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전자저널 가격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출판사의 가격정책과 판매전략에 도서관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전자저널을 구매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방안으로는 연속간행물 예산 가운데 핵심저널을 구독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논문구입에 활용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를 권하고 있다. 이 경우 대학도서관 평가 등에서의 보완과 같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전자저널의 확산과 같은 외적 조건의 변화로 도서관 업무의 일부가 출판사로 이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간 협력이나 자간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서관인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지식정보시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윤옥 경기대학교 교수 외 2인)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사정은 매우 열악했는데, 최근 들어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

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이해가 높아져 실제적인 활성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환경과 목표에 맞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적합한 학교도서관의 위상을 모색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그 수의 절대적 부족과 설치율 감소현상, 장서와 사서 교사의 절대적 부족, 정보화 미비, 운영예산의 부족과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장강화 전략

과 지원기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도서관 현장강화전략으로는 전담운영자의 확보와 적정활동을 보장할 것, 학교구성원과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원기반 활용의 방안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행정당국의 지원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방안으로 교수-학습협력을 위한 협동교수프로그램 개발, 독서지도 프로그램, 정보활용교육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도서관계 주요행사 소개 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회장 운영대)는 4월 20일 춘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전상숙 한국기록관리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대학 Archives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1999년 제정·공포된 '공공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자료관의 개념, 필요성, 그리고 그 설치대상인 대학 아카이브즈(Archives)의 설립과 성장과정, 대학도서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도서관과 아카이브즈의 차이점

을 규명하면서 정보사회 속에서의 대학의 모든 부서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위에 존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 아카이브즈는 상호 협력하여 상승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의 아카이브즈는 그 소장자료의 성격상 그것이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대학인의 정체성·일체감 형성, 이것을 기초로 한 대학 본래의 기능인 학문탐구와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 내는 풍부한 대학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서관 측에서도 대학 아카이브즈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소속 대학의 정보능력 향상과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자료관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주제로 박지태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의 발표

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관은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국가적인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여 기록물 생산에서 보존 또는 폐기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계획성있게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진제공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이러한 자료관이 미국과 중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실제 자료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료관 구성에 있어서는 기록물관리업무, 교육업무, 공개 및 열람활용업무, 매체관리 및 전산관리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관 구성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관 운영을 담당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문제도 다루었다. 발표자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

록물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자료관이 설치되고 여기에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활동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예산이나 인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둘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물관리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해야 하고, 셋째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대상기관인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처음부터 전문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업무를 구성하며, 넷째 모든 공직자에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장이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 이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정보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와 대책마련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